

제목: "내가 믿는 예수"

말씀: 사도행전 9장 1-19절

오늘 말씀은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증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울의 부르심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 1) 자신의 _____ 살아갔습니다. (2절)
- 2)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_____. (4-5절)
- 3) _____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18-19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선교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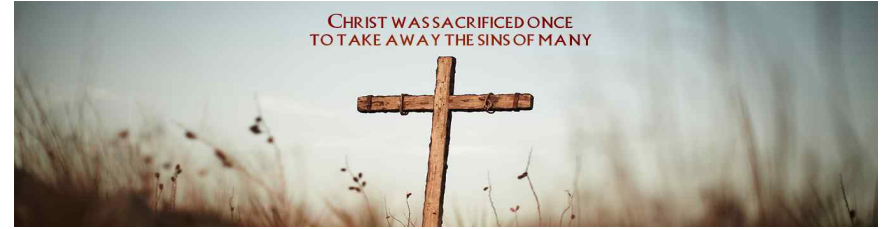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사도행전 9장 1-19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Acts 9: 1-19 201 페이지 Presider
- 말씀 "내가 믿는 예수" 김성민 목사
Message Saul to Paul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감격을 주는 교회)

지난주일 동부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돕고 있는 깊은 뿌리들 교회(Deep Roots Church, NJ)를 방문하였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방문한 터라서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도착했다.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참으로 기뻐다. 그동안 우리교회가 기도하던 곳이라는 것에 대한 감격과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모습 속에 자유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배가 진행 되면서 기대하던 목사의 말씀 선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이 아니라 페이지로 2 페이지 이상을 읽고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짚어 가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닌가? 기대하지 않은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 말씀은 먼 후배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보고 들어야 할 말씀이었고 특별히 2세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우리교회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렸다.

광고 시간에 우리 부부가 참석했다고 소식을 알리면서 앞으로 나오게 했다. 우리 부부는 앞으로 나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목사는 우리의 인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서 나와 내 아내의 어깨와 팔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고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자신들은 우리에게 해 줄 것이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다. 그 교회는 결코 작고 얼마 전에 개척된 어린 교회가 아니었다. 성숙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큰 교회의 모습을 갖춘 2세들과 다 민족 교회였다. 나는 마치 다른 나라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것 같은 착각을 했다. 충분한 친교를 한 후 아쉬운 포옹과 함께 헤어지면서 멀리 있지만 늘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고 약속했다.

그 교회는 우리가 돕는 교회가 아니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쓰게 되는 영광을 얻게 하는 교회다. 하나님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의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행전 16장 5절) 만일 그 교회가 가까이에 있다면 더 많은 돕고 함께 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교회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관계로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들의 부모 역할을 감당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깊은 뿌리들 교회는 우리교회에 정말 감사하고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회가 더 많이 생겨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곳에 다민족 교회가 개척되도록 기도해야겠다. 우리는 얼마의 돈을 보낸 것인데 그들은 우리의 편지를 열어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2021년에는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열심히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과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5월 30일 모든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려는 법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4. 6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6월호를 받아서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6월 중 야외예배 계획

모든 성도들이 가능한 날짜를 잡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